

2016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6년 7월 1일(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7호 -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 결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 제28조 제3호 및 제64조 제1항에 의거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원한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지원을 결정하면서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먼저 금번 지원의 목적이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하고, 캐피털 콜(capital call)에 의한 실제 대출은 금통위가 금융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캐피털 콜 요건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 금융시장 불안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해야하고 추후 대출 실행 시에 시장을 통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수 있도록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손실 최소화 장치의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금번 한은 대출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자산의 처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들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합성의 제고를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한국은행 지원의 기본 원칙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불임과 같은 방향으로 운용할 것을 의결한다.

<불임>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 결정(안)(생략)